

경제

불황 지역 건설사 상생점수도 꺾어

국토부 상호협력 평가, 우수업체 광주·전남 전년비 25% 감소

가점 혜택 줄어 수주 감소 우려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지역 건설사 간 상호협력도 소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전남도회에 따르면 '2011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대·중소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률 55개사, 전남 267개사 등 총 322개사가 선정됐다.

하지만 이는 광주·전남지역 전체 종합건설업체 1160개사(광주 197개, 전남 963개) 중 27.7%에 불과한 데다 지난해 428개사(광주 63개, 전남 365개)보다 24.8% 감소한 수치다. 특히 전남지역은 무려 98개사가 줄어

들었다. 전국적으로는 21.5%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가점 혜택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전망돼, 입찰 참여 위축과 수주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처럼 우수 건설업체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4대강 사업에 정부 예산이 편중되면서 공공공사 물량이 급감하고, 출혈 경쟁에 원가 압박까지 가중되면서 건설업계의 상호협력의 여지가 좁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 적정성 여부 등 심사요건이 강화된 것도 우수업체 선정비율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상호협력 평가 우수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점수에 따라 ▲95점 이상 3점 ▲90점 이상 2점 ▲80점 이상 1.5점 ▲70점 이상 1점 ▲60점 이상 0.5점의 가점 혜택을 받는다.

또 내년부터는 PQ 가점 외에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 평균액의 3~6%를 가산하는 시공능력평가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이번 평가에서 남흥건설(대표이사 안은우)은 3년 연속, 남해종합개발(회장 김용서)은 2년 연속 대기업분야 최우수업체(95점 이상)로 선정됐다.

남화토건과 금호산업은 90점 이상~95점 미만, 동광건설·남양건설·남광건설·해동건설 등 4개사는 80점 이상~90점 미만, 남영건설·

중흥건설·금광기업·우미건설·삼능건설·한국건설 등 6개사는 70점 이상~80점 미만, 제일건설·모아종합건설 등 2개사는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동남종합건설·대선건설·대진종합건설·제이에이건설·중동종합건설·대양종합건설 등 6개사가 최우수업체로 뽑혀, 3점 가점을 받게 됐다.

또 영진종합건설·상명건설 등 34개사는 90점 이상 95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대한건설·대림종합건설 등 81개사,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혜성건설·대양건설 등 92개사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대진종합건설·엠케이건설 등 93개사로 집계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겹살’ 대신 반값에 돼지 갈비살로 삼겹살 가격이 연일 올라 소고기 가격을 넘어서며 고품질을 원하는 가운데 13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직원들이 삼겹살의 반값 정도로 먹을 수 있는 돼지 갈비살을 선보이고 있다. 100g에 1300원. /연합뉴스

금호터미널 분리매각 확정

자회사 3곳 대한통운과 분리 금호그룹에 되팔아

매각 협상 최종 타결

금호터미널 등 자회사 3곳을 대한통운과 분리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되파는 방식의 매각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13일 금호터미널 등에 따르면 대한통운 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은 금호터미널과 아시아나항공 개발, 아스항공 등 대한통운 자회사 3곳을 금호그룹에 되파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시간이 걸렸던 제3자가 산정한 매각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금호터미널 2314억원, 아시아나항공개발 585억원, 아스항공 387억원 등 대한통운 자회사 3곳의 지난해 말 장부가는 3286억원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이날 합의된 자회사 매각안을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회사 분리매각 문제로 일정이 늦춰졌던 대한통운 매각 작업이 본격화된다.

대한통운 매각주간사들은 이날 본입찰 안내서를 포스코, 롯데, CJ그룹 등 예비입찰에 참여한 3곳에 발송했으며, 이달 말 본입찰을 실시한 후 이르면 다음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농산물 수출 2500만 달러 시대 연다

올들어 661만 달러...17%↑

전남지역 농산물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 이대라라면 올해 전남 농산물 수출 2500만 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 말까지 전남 농산물 수출 실적은 661만 달러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성장한 수치다.

품목별로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된 파프리카가 231만5000달러로 가장 많았고, 차 종류 152만달러, 메론 79

만6000달러, 심비디움 65만6000달러, 배 45만2000달러, 김치 등 절임식품 19만3000달러, 표고버섯 11만8000달러 등이었다.

수출 국가별로는 일본이 361만8000달러로 절반 이상(54.7%)을 차지했으며, 중국 182만4000달러, 미국 56만4000달러 등의 순이었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해 수출실적이 1905만달러, 2009년 2020만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추세라면 2500만달러 달성도 내다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농협 전남본부는 이날 '2011년 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농산물 수출 2500만달러 시대 달성을 결의했다.

김용복 전남본부장은 "최근 전남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재난 피해와 유럽의 식중독 확산으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수출지향적인 과학 영농과 특세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수출전략이 있다면 우리 농산물도 충분히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마 코앞... 풍수해보험 드세요”

금감원 가입 권고

최대 86% 지원도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이나 호우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13일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다.

또 아직 국내에는 지진위험만을 보장하는 별도의 보험상품이 없지만 기존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풍수해보험은 개

인부터 보험료의 55~86%를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풍수해 피해가 빈발하는 7~9월을 앞두고 6월중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가입 대상이다.

특히 보험료 가운데 일반가입자

는 55~62%를,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소득 차상위 계층은 76%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를 기준으로 50%, 70%, 90%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전과·반과·소과 등 피해정도를 3단계로 나눠 보험가입 당시 정한 금액을 보장한다.

금감원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일본 대지진으로 국내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기존 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진특약에 가입하면 지진으로 인한 화재, 연소, 붕괴, 파손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손해방지사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받는다.

연합뉴스

부실 저축銀 접대비는 ‘평평’

23곳 영업적자에도 5년간 72% 늘려

저축은행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지난해 로비 목적 등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접대비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저축은행이 금융감독기관의 감사 무마와 퇴출 저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간부와 정관계 인사들에게 급속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로비 과문이 저축은행 전체로 퍼지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검찰의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재벌닷컴이 지난해 매출(영업수익) 1000억원을 넘는 상위 23개 저축은행의 영업보고서를 바탕으로 5년간 접대비 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2006년 50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86억3000만원으로 71.5% 급증했다.

접대비 증가는 참여정부 말기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50억3000만원에서 2007년 65억4000만원으로 30.1% 급증했다.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의 유력 인사들에게 줄 대가를 대폭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2년간은 접대비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8년 70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 2009년에는 71억5000만원으로 1.3% 늘었다.

그러나 영업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퇴출 위기를 감지한 지난해에는 접대비가 급증했다. 전년보다 무려 20.8% 늘어난 86억3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영업실적은 건설업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여파로 최악으로 기록됐다. 영업적자가 2902억원으로 전년도 460억원의 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접대비가 불어나면서 부실대출은 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은 접대비 한도 기준을 넘는 탓에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손실로 인정받지 못했다.

저축은행별 접대비를 보면 매출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이 가장 많았다. 721억원의 영업적자를 뺐음에도 매출액 5813억원의 0.22%인 12억7000만원을 썼다.

미래저축은행 역시 61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매출액 1761억원의 0.56%인 9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8억4000만원에 달했다.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977억원의 영업적자에도 5억7000만원을 사용했다.

검찰 수사대로 최근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생긴 프라이저축은행도 지난해 319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고도 4억3000만원을 지출했다. 저축은행 사태의 도화선이 된 부실저축은행은 다른 곳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았다. 1085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상황에서 1억6000만원을 썼다.

연합뉴스

동전 모아 34억 절감

한은 광주전남본부

화폐제조비용 줄여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5월 한달 간 실시한 ‘범국민 동전 교환운동’을 통해 34억원 가량의 화폐제조비용을 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한달 간 은행 등에 동전 교환창구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가져온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는 운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2650만장(38.8억원)의 동전을 교환했으며 교환 실적은 제조비용으로 환산하면 34억원에 이른다.

교환된 동전규모는 4월 말 동전 발행 잔량(12억장) 기준으로 2.2% 수준으로, 지난해 2010년 동전 순발행량(6000만장)의 41.6%에 해당되는 수치다. /임동룡기자 exian@

연합뉴스

광주 건설협회 부회장 장상근씨 취임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상임부회장 겸 사무처장에 장상근(59) 전 광주시 건설방재국장이 지난 10일 취임했다. 장 신임 부회장은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율이 낮아 지역중소건설업체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형공사의 분할발주와 지역업체의 의무공공도급비를 확대해 통해 지역

업체의 수주를 제고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 부회장은 1978년 공직에 입문해 광주시 건축주택과장, 종합건설본부장, 건설방재국장을 역임하는 등 33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48.74 (+2.07)
코스닥지수	458.15 (-8.76)
금리 (국고채 3년)	3.66% (+0.01)
원·달러 환율	1085.90원 (+3.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미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7월 1일